

## [그래픽 이슈] 2011년 재벌 대기업 이익 증가 64.4%

---

2011.6.17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 대기업 이익 증가는 64.4%, 가계 소득 증가는 5.3%
-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 비율은 0.1%, 대기업 고용 비율은 12.3%



---

<http://saesayon.org>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sup>1)</sup>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표1. 2011년 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상위 10위 대기업

(단위 : 개, 조 원)

순위	기업집단	총수	계열사수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1	삼성	이건희	78	230.9	254.5	24.5
2	현대자동차	정몽구	63	126.7	129.7	13.5
3	에스케이	최태원	86	97.0	112.0	5.0
4	엘지	구본무	59	90.6	107.1	4.6
5	롯데	신격호	78	77.3	47.5	3.4
6	현대중공업	정몽준	21	54.4	49.8	5.4
7	지에스	허창수	76	46.7	52.9	2.8
8	한진	조양호	40	33.5	23.5	1.0
9	한화	김승연	55	31.7	30.9	1.3
10	두산	박용곤	25	27.0	18.7	0.7
상위 4개 집단 합계			286	545.2	603.3	47.6
상위 10개 집단 합계			581	815.8	826.6	62.2
전체 38개 집단 합계			1346	1106.3	959.9	66.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기업 집단(1554개 사)를 지정했다. 이들의 총 자산총액은 1690조 5천 억 원으로 평균 자산총액은 30조 7천 억 원이었다.
-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집단이 8개였으며 나머지 민간 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38개였다. 이 38개의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재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표1과 같다. 1위는 삼성(230조 9천 억 원), 2위는 현대자동차(129조 7천 억 원), 3위는 에스케이(97조 원), 4위는 엘지(90조 6천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38개 집단의 자산규모 중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규정하며, 2009년부터 이들 중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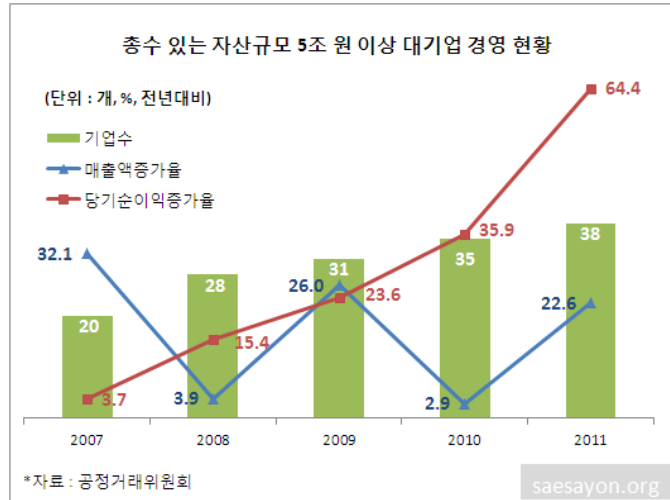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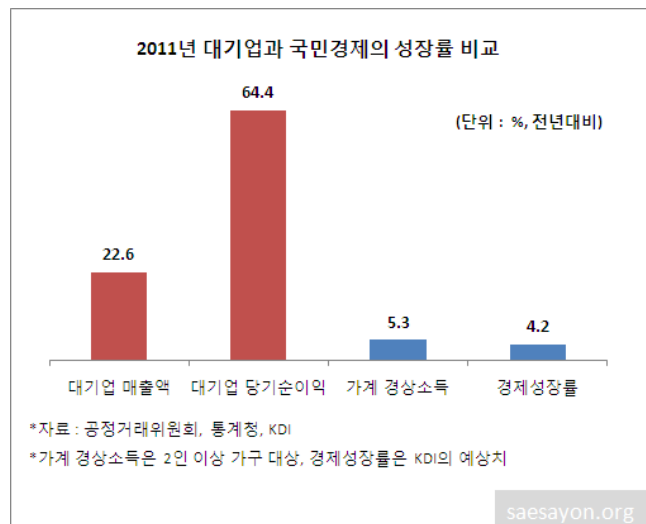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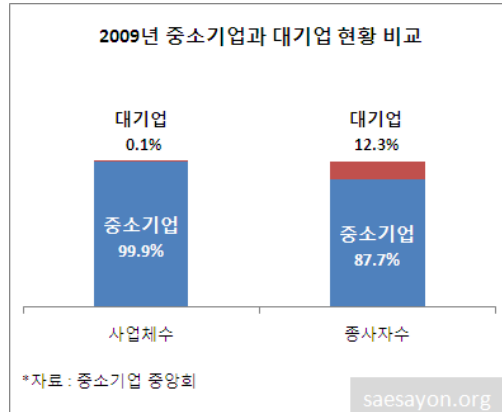


□ 대기업 이익 증가는 64.4%, 가계 소득 증가는 5.3%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38개의 지난 5년 간 경영 현황을 보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당기순이익의 경우 매년 증가율이 약 10%씩 높아지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64.4%에 이르렀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33조 8천 억 원에서 2011년 66조 6천 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 매출액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581조 5천 억 원에서 2011년 959조 9천 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하지만 대기업의 이같은 급속한 성장에 비해 2011년 가계소득 증가는 5.3%에 그쳤으며, 경제성장률의 경우 4.2%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3.



□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 비율은 0.1%, 대기업 고용 비율은 12.3%

-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파악해보았다. 우선 사업체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369만 4천 개 중 대기업은 2916개로 0.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9%는 306만 6484개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 다음으로 종사자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1339만 8497명 중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164만 7475명으로 12.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7%의 1175만 1022명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 이처럼 대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경제를 포함한 전체 국민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